

## 폐 aspergillosis의 외과적 치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고영삼 김민호 김공수

Aspergillus는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진균으로, 1729년 Micheli에 의해 조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가장 흔하며 외과적 절제의 대상이 되는 aspergilloma는 기존 폐의 공동에서 집락균을 형성하여 진균사, 섬유소 염증세 포 등이 모여 구형 덩어리인 mycetoma를 형성한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8년이래 외과적절제로 치료한 16예의 폐 aspergillosis에 대한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 남자 7 예, 여자 9 예였으며, 연령분포는 30세에서 63세까지였고, 평균 연령은  $45.16 \pm 11.08$ 세이다.
2. 주증상은 각혈 및 혈담이었고(90.9%), 수술까지의 기간은 1주에서 10년까지 다양하였다.
3. 술전 객담검사상 6 예에서 균사들 보였고, 술후 전례에서 병리조직 검사로 확진하였다.
4. 전환자에서 내원 전에 항결핵제를 복용한 기왕력이 있었으나, 병리조직 및 객담 검사상 결핵으로 확진된 환자는 3 예(25%)이었다.
5. 병변 부위는 상엽 13 예, 하엽 2 예이었고, 좌측 상하엽에 모두 있었던 경우도 1 예이었으며, 수술은 폐엽절제 12예와 폐구역절제 3예 그리고 전폐절제 1 예를 시행하였다.
6. 술후 발생한 합병증은 complex type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단일폐엽절제술을 시행한 7 예중 3 예에서 사강 및 공기누출등이 있었다.
7. 술후 사망은 1예였다.
8. 평균 추적기간은  $21.18 \pm 16.66$ 개월이었고, 재발은 없었다.